

# “9월 여수로 오세요”...세계섬박람회 전방위 홍보전

공직자 자발적 참여...성공 개최 염원  
세종·서울·부산 등 전국 거점서 홍보  
‘다섬이’ 조형물 인증시 기념품 제공  
전남도민 전기간권 50% 반값 혜택



여수시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150여명이 입장권 판매 독려 홍보영상 촬영을 하고 있다.

〈여수시제공〉

여수시가 올해 9월 개막하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영상 제작부터 전국 주요 거점을 겨냥한 대대적인 오프라인 마케팅,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는 SNS 이벤트까지 온·오프라인 등 전방위적 홍보전을 펼치며 박람회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 있다. 25일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국 직원 150여명이 부시장과 함께 섬박람회 입장권 판매 독려를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했다.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박람회 알리기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겠다는 취지로 직원들의 성공 기원 메시지와 밝은 에너지가 담긴 이 영상은 마무리

작업을 거쳐 오는 4월 초 시 공식 유튜브와 SNS 채널인 '여수이야기'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관광객과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체험형 이벤트도 풍성하게 마련된다. 시는 박람회 공식 마스코트인 '다섬이' 조형물을 오토도, 종포해양공원, 이순신광장, 웅천천수공원, 시청 본청, 엑스포역 건너편 등 지역 내 핵심 관광지와 생활

권 중심지 6곳에 설치했다. 상춘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인증샷 명소' 조성하고 이를 연계한 SNS 키링 증정 이벤트도 다음 달 3일까지 진행한다. 다섬이 조형물과 함께 찍은 사진을 지정된 필수 해시태그(#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등) 및 응원 문구와 함께 개인 SNS에 올린 뒤 네이버 폼

으로 인증하면, 선착순 600명을 대상으로 한정판 다섬이 키링 인형을 증정한다. 6곳 모두 인증 시 5개, 3곳 이상 인증 시 3개를 차등 지급해 참여의 재미를 더한다. 또한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축제로 승화시키기 위한 전국구 타깃 홍보도 본격에 들어갔다. /여수=김진선 기자

## 고흥군, 민관협력 자립형 '건강마을' 조성 속도

주민 주도 '생활 실천' 목표  
예회마을 등 2곳 최종 선정  
다양한 시책 지속 발굴·추진



였으며, 의료 접근성과 65세 이상 인구 비율, 주민 참여 의지 등을 종합 평가해 예회마을 등 2곳이 최종 선정됐다. 제3호로 지정된 예회마을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80%를 웃도는 초고령 마을로, 체계적인 건강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관식과 함께 마련된 통합 건강 부스에서는 혈압 측정 등 기초 검사와 감염병 예방 교육이 진행됐으며, 민관 협력 기관인 녹동현대병

원의 의료 봉사과 보건소 이동 구강진료서비스를 활용한 맞춤형 진료가 더해져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공영민 군수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삶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더욱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군민의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다채로운 시책을 지속해서 발굴할 방침이다. /주성학 기자

고흥군이 민관 협력과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자립형 건강마을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두원면 예회마을에서 공영민 군수와 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형 천수(天壽) 건강마을' 제3호 현관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 사업은 신체 활동과 영양 관리, 금연, 만성 질환 예방 등 통합 건강 프로그램을 3년간 단계적으로 지원한 뒤, 마을 리더를 중심으로 한 자율 운영 체계로 전환해 주민 스스로 건강을 돌보도록 돕는 시책이다. 앞서 2024년 과역면 내로마을(1호)과 2025년 금산면 동정마을(2호)이었다. 올해는 30개 마을이 신청해 치열한 경쟁을 벌

## 장흥군, 오늘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제'

해동사서 봉행...애국정신 계승·확산  
장흥군이 대한민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 헌신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린다. 25일 장흥군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15분 장동면 해동사에서 '안중근 의사 순국 116주기 추모제'를 개최한다. 이번 추모제는 전통 제례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죽산 안씨 문중의 약사 보고, 장흥중학교 학생 대표의 '안중근 의사 최후의 말씀' 낭독, 추모 공연, 분향 및 참배 순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안중근 의사 바로 알기' 역사 체험을 비롯해 포토존 운영, 단지(斷指) 방명록 작성

등 방문객들에게 의미 있는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마련됐다. 추모제가 열리는 해동사는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 의사의 영정과 위패를 모신 사당이다. 순흥 안씨인 안 의사의 후손이 없어 제사를 모시지 못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지역 인사들과 죽산 안씨 문중이 뜻을 모아 지난 1955년 건립했다. 해동사는 2017년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등 록된 데 이어 2019년 전라남도 문화유산자료로 지정됐으며, 추모역사관과 메모리얼파크가 차례로 조성돼 역사·교육 공간으로서 기능을 확대해 왔다. 2025년에는 현충시설로 재지정돼 그



장흥 해동사 안중근의사 추모 역사관에 마련된 안중근 조형물 모습. <장흥군 제공>

위상을 확고히 다졌다. 장흥군 관계자는 "이번 추모제가 안 의사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나라 사랑과 국민 통합의 가치가 지역사회를 넘어 널리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노정록 기자

## “지역 전체가 배움터...미래 K-교육 선도”

광양교육지원청 2030 비전 선포식  
논어 구절 인용 5대學 청사진 제시  
광양교육지원청이 지역 생태계 전체를 총출한 배움터로 연결하는 '광양교육 2030 비전'을 선포하며, 광양을 대한민국 미래 K-교육의 선도 모델로 도약을 선언했다. 25일 광양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광양 백운아트홀에서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김경완 광양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교육 단체 관계자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선포식을 성황

리에 개최했다. 단상에 오른 김여선 교육장은 논어의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구절을 인용하며 배움의 본질적 즐거움을 역설했다. 이어 자기주도성, 창의융합, 마음 건강, 글로벌, 공생의 배움 등 5대 핵심 비전을 제시하며 지역 전체를 학생들의 배움 공간으로 확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세부 실천 과제로는 광양형 독서·한자 교육 및 인공지능(AI) 맞춤형 학습 체계 구축, 오는 2029년 전남수학박물관 개관, 전통 예절을 집목한 서당학교 등 맞춤형 치유 체계 강화 방안을

속도감 있게 발표했다. 아울러 창의예술중학교를 특성화중으로 전환해 글로벌 교육 거점으로 육성하고 '교육 공방'을 조성해 학교와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학생의 생태계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패널로 나선 김 교육감과 김 권한대행 역시 광양이 지닌 역량과 미래 교육 체제가 시너지를 내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 교육장은 "이번 선포식이 단순히 새로운 정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나아갈 올바른 배움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정표"라며 "전 교직원과 합심해 광양 교육이 명실상부한 K-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헌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 구례수목원 '올해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 선정

지리산 사계 담은 힐링 명소 인정  
구례군은 25일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6년 꼭 가봐야 할 수목원 10선'에 구례수목원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024년부터 수목원의 가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특별한 테마를 정해 우수한 수목원을 선정해 왔다. 올해는 '가족과 함께 가봐야 할 수목원'을 주제로 서류 및 현장평가, 온라인 국민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전국 수목원 가운데 구례수목원을 포함한 10곳이 최종 선정됐다. 구례수목원은 2021년 5월 개장한 전남도 제1호 공립수목원으로, 54ha 면적에 13개의 테마 전시원을 갖추고 있다. 사계절 다양한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자연형

수목원으로, 산과 숲 풍경이 어우러져 자연을 관찰하며 산책하기 좋은 여행 코스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가족과 함께 즐기는 '오감만족' 힐링 산책로가 잘 정비돼 있으며, 숲과 계곡이 어우러진 자연환경 속에서 휴식과 치유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더불어 인근 산수유마을, 지리산치즈랜드, 지리산정원 등과 연계한 관광 코스로 활용도가 높아 지역 대표 힐링 관광지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선정은 구례수목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힐링 관광지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설 개선과 다양한 산림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더욱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례=김세종 기자

## 보성군,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결핵 검진'

올해 65세 이상 1천85명 무료 검사  
보성군이 '제16회 결핵 예방의 날'을 맞아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을 추진한다. 25일 보성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군 보건소에서는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 무료 흉부 엑스선 검사와 객담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의심 환자 발견 시 즉시 의료기관에 연계해 신속한 치료를 돕고 있다. 앞서 지난해에는 관내 76개 시설에서 1천364명을 검진해 2명의 숨은 결핵 환자를 조기에 찾

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총 1천85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문 검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은 오는 27일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일원에서 2주 이상 기침 시 검진 권고 및 기침 예절 등을 알리는 결핵 예방 홍보 캠페인도 전개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은 조기 발견과 꾸준한 치료로 완치가 가능한 질병인 만큼 어르신들의 매년 정기 검진이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검진과 적극적인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해 지역 내 결핵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 기자



## 담양군, 제9기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 회장군 선출

담양군이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를 이끌어갈 새로운 수장으로 낙점됐다. 25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충남 태안군 해양치유센터에서 열린 '2026년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9기 회장군으로 최종 선출됐다. <사진> 이번 총회에는 14개 회원 시·군 지자체장과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담양군은 회원 시·군의 압도적인 추천을 받아 회장군으로 추대됐다.

이에 따라 담양군수는 향후 2년간 협의회장직을 수행하고 전국 슬로시티 도시 간의 교류와 협력을 진두지휘하게 되며, 내년에 열린 '2027년 정기총회' 개최지 역시 담양군으로 확정됐다. 김은영 관광과장은 "14개 회원 도시의 두터운 신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긴밀한 연대를 통해 슬로시티의 훌륭한 가치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담양 역시 슬로시티 종주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